

진정한 교회 부흥의 비결

요한복음 3:22-30

교회는 반드시 부흥 해야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교회부흥의 비결을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비결은 예수님이 흥하고 설교자가 쇠해야한다. 본문 30절을 보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 부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만히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비 성경적이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다. 왜 예수님을 높일 때 교회가 부흥하는가?

첫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들을 보내신다.

둘째, 예수님 만이 구원 받은자의 진정한 신랑이기 때문이다.

I.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신다

본문에는 두 그룹의 모임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22절에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룹이 모여서 세례를 베풀다. 23절에서 보면 세례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그룹이 모여서 세례를 베풀다. 그런데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떠나 다 예수님에게게 되었다.

그동안 자기 스승, 세례요한에게 구름 때처럼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더군다나 그 상황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고 변론을 한 것이다(25). 이것은 어쩌면 조롱 비슷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시기와 열등감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그들의 심정을 토로 했다. 26절을 읽어보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때 요한의 대답은 의외이었다. 그의 제자들이 이해 하기 정말 힘든 말이었을 것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뜻이다.

본문 바로 앞부분 요한복은 3:21 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 것을 보이려 함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그의 거듭남, 그의 새 행실, 새 태도, 새 애

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분명히 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즉, 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을 보이는 것을 즐거워 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자신의 새로움이 하나님의 일, 즉 주권적인 은혜의 일임을 분명히 하기를 좋아한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은 거듭난 인생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삶을 즐거워 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참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때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날 때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을 보낸 것이다. 요한복음 6: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그는 죄하여야 하는 것이 그의 바라고 소원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가 바라던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흥하여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는 것은 그 사역의 열매요 그는 성공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말한다.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편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지 모른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 할 수 없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사람을 의지한 자는 결국 그 장래가 비참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친다. 그 원리가 십계명 중 제1계명이다. "나 이와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가? 성공을 위함이라면 불의한 자라도 서슴 없이 따라간다. 그러나 성경은 세례요한 같이 의롭고 경건하며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 복음 저자 요한은 세례요한은 이름 없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한다.

24 요한이 아직 욕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충성 스럽게 진리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칼에 맞아 죽고 말다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그가 외친 진리는 영원 무궁히 온 인류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외치고 높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그에 대한 최고의 예우일 것이다. 그가 유언적으로 말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없는 자들이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맹종하고 있는가? 가난한 재개발에 속해 있는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갈 취하여 500억을 뜯어 낸 극악 무도한 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그가 담임 하고 있는 교회를 성지라고 해서 전국에서 모여 든다고 한다. 그리스도가 존경 받지 않고 인간이 존경 받는 곳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집단들은 모인 곳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부흥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

II. 예수님만이 구원 받은자의 진정한 신랑이기 때문이다.

세례요한은 다시 그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흥해야할 것을 이렇게 증거한다.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 하고 있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소개 한다. 신랑은 신부를 취한다고 했는데 신부는 예수님을 따르자를 말하고 있다. 믿는자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신부라는 그림은 성경 여러곳에서 나온다.

. 계21:9에서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신랑이요 우리 믿는 자는 어린양의 신부라고 했다.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어린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란 믿는자 어린양의 신부를 위한 죽음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은 신랑의 역할을 이렇게 소개 하고 있다.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진정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고 자기는 쇠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세례요한이 여기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떠나 예수님에게 간다고 말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요한에게 오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과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고 했다(25). 아마 유대인들은 너희 선생 요한의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라고 따졌을지 모른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의 스승의 세례를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문제를 들고 논쟁을 벌리니까 그들의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세례요한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시원 스럽게 대답 해 준 것이다. 진정한 깨끗케 하는 역사는 그의 세례나 유대인의 결례의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우리를 참으로 깨끗케 할 수 없다. 참으로 깨끗케 하는 것은 십자가

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 예수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효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끊임 없이 묵상 하고 연구할 때 우리에게는 한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앤드류 머레이가 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꼭 읽어 보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나는 꽤 오래 전에 이 책을 읽고 많은 은혜를 체험 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과거에 일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교회가 예수님의 관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세례요한은 쇠해야한다. 예수님이 흥한 곳에서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 진정한 교회 부흥은 반드시 예수님이 흥하고 다른 모든 증인들은 쇠하여 사라져야 한다. 인간 목사가 계속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교회는 진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진정한 설교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높여야 하고 자기를 감추어야 한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운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의 설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재미 있는 일화가 있다. 그는 인기 있는 설교가로 인정 받고 있을 때 설교 초청을 받아 남웨일스 브리즈랜드(Brigend)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목사가 당신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가 없다고 도전을 했다. 그는 감히 나같은 위대한 설교자에게 그런 충고를 하다니! 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즉시 책방에 달려가 데일(R.W. Dale)이 쓴 “그리스도의 속죄(1875)”와 제임스 데니(James Denny)가 쓴 “그리스도의 죽음”(1903)이라는 두 권의 책을 사가지고 와서 점심과 차마시는 것까지 거르면서 수 날을 그 책에 몰두했다. 너무 지나치게 몰두한 그의 모습이 정신이상으로까지 보일 정도여서 그의 부인은 그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기를 요청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몇 날을 통해서 책을 다 읽고 난 후 “복음의 참된 핵심과 기독교 신앙의 길”을 발견했다고 외쳤다. 그 후 설교의 내용도 바뀌었으며 설교 능력도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부흥을 가져 온 사람이다. 교회 부흥을 열망한 성도들이여, “복음의 참된 핵심과 기독교 신앙의 길”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자.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30) 이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아멘